신안군, 문경수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준공식 개최

지리적표시 등록된 건우럭 브랜드화에 박차

"청년 어업인 돌아와 정착할 수 있도록 육성"

신안군은 지난 4월 28일 압해읍 동서리에 16억원의 가공시설을 갖춘 문경수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준공식을 가졌다.

신안군의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우럭, 민어 등 우수한 어류 수산물이 가공공장이 부족하여 타 지역으로 대량 헐값에 반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고소득 창출을 목표로 수산물 가공공장 유치에 수년간의 노력을 들인 끝에 결실을 맺었다.

김승훈 대표는 준공식에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을 지원해준 신안군에 감사하며, 신안군 지리적표시가 등록된 건우럭을 고품질로 생산하여 수산물 제품 브랜드에 최고가 되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지역 사회 발전에도 공헌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가공공장이 부족하여 많은 수산물들이 원물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위와 같은 가공공장들을 지속적으로 유치 지원하여 많은 청년 어업인들이 신안군으로 돌아와 정착할 수 있도록 확대, 집중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은 우럭 양식 96어가에서 우럭을 약 4,540톤 생산하여 470여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건우럭 제품은 지리적표시 제27호로 등록하여 운영 중이고, 9월경 압해읍 분재정원 인근에서 우럭축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신안=이덕주 기자

영암군, 밀·보리 등 붉은곰팡이병 방제 당부

방제 적기 이삭 패는 출수기 전후 10일 간격

영암군이 밀·보리 등 맥류의 붉은곰팡이병 감염 예방을 위해 농가에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붉은곰팡이병은 맥류의 이삭이 여물기 전 비가 2~3일 지속되고 상대습도가 95% 이상인 온난다습한 환경에서 잘 발병한다.

이삭의 낟알이 갈색을 거쳐 붉은색으로 바뀌고, 속이 차지 않거나 검은색으로 변하는 것이 병의 증상이다. 감염되면 수확량이 줄고 품질이 떨어진다.

특히, 붉은곰팡이병은 진균독소를 만들어 사람과 가축이 먹을 경우, 구토와 복통을 일으킬 수 있다.

방제의 적기는 이삭이 패는 출수기 전·후 10일 간격이다.

디페노코나졸·캡탄수화제 등 등록된 약제를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따라 2~3회 방제하고, 습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영암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맥류 출수기 전·후 비가 자주 오는 것을 감안해서 맥류 붉은곰팡이병을 적기에 방제하고, 생산량 제고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목포시 제27회 어린이날 큰잔치 개최

'꿈과 생명·평화를 담은 어린이가 Green 어린이날'…부흥동 둥근공원서 개최

목포시는 어린이날 101주년을 기념해 오는 5일 부흥동 둥근공원 일대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큰잔치를 펼친다.

목포시가 주최하고 목포YMCA 주관하는'제27회 어린이날큰잔치'는 「꿈과 생명·평화를 담은 어린이가 Green 어린이날」이라는 주제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어린이, 가족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키즈밸리댄스,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축하공연 등에 이어 오전 11시부터 기념식이 진행되고, 이후 가족과 함께하는 레크레이션, 위키드Y-어린이 장기자랑이 준비되어 있다.

또, 에코존, 평화존, 드림존, 플레이존, 피크닉존의 5가지 체험부스가 마련되는데, 에어스포츠, 환경주제 프로그램, 평화담은 키링, 어린이 네일아트, 타투이스트, 전통놀이 등이 다채롭게 진행 될 예정이다.

시는 행사 당일 비가 올 경우 행사장 인근 목포시하당청소년문화센터 내·외부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행사가 일부 축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목포시 아동복지시설 11개소에서는 목포시의 보조금 지원으로 입소 아동을 위한 문화체험 박물관 및 영화관람 등 자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문화 소외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문화활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함평 관광 팸투어' 추진…관광산업 활성화 박차

함평군이 제25회 함평나비대축제를 맞아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함평군은 2일 "SNS인플루언서, 관광전문기자단을 대상으로 하는 '함평 관광 팸투어'가 지난달 27일과 28일 이틀간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SNS 인플루언서, 관광전문기자단 등 2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나비대축제가 열리는 엑스포공원과 함평자연생태공원, 일강김철선생기념관, 용천사 등 함평 주요 관광지를 탐방했다.

군은 이번 팸투어를 통해 관광지 소개뿐 아니라 주포한옥마을과 같은 숙박시설과 농·특산물 등 지역 먹거리 자원도 함께 홍보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무안군, 제138회 황토골 자치마당 개최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의 개념과 필요성'을 주제로 강연

무안군은 지난 4월28일 남악복합주민센터 대공연장에서 군민, 공직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상득 동신대 지역개발연구소 선임연구원을 초빙하여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의 개념과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황토골 자치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무안군의 탄소중립 추진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기후변화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제고하며, 나아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실천해야 할 행동에 참여하는 동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득 강사는 ▲탄소중립의 개념, ▲무안군 탄소중립 추진현황, ▲탄소중립 실천방법에 대해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양한 시각적 예시 자료와 사례를 바탕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이상득 강사는 "현재의 기후변화에 대응할 친환경 저탄소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경각심을 일깨웠다.

김산 무안군수는 "심각한 기후 위기 속에서 공직자와 군민들 개개인의 행동 실천과 지구를 지키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해나가자"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영광군, 논 콩 재배기술 교육

생산성 향상 위한 다수확 재배기술 중점

영광군은 지난 4월27일 농업인회관에서 콩 재배 농가 70여 명을 대상으로 논 콩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해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날 교육은 나주시 알곡영농조합법인 최정웅 대표가 강사로 나서 논 콩 안정생산을 위한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다수확 재배기술을 중점으로 경험과 비법을 공유하며 진행되었다.

논 콩은 배수설계가 필수적이며, 초기 입모관리와 습해예방, 제초제 체계 처리만 잘해준다면 수량성이 밭에 비해 높고, 대규모 기계화 재배도 가능해 농가 소득 증대와 콩 자급률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올해 처음 논 콩 재배에 도전한다는 한 농가는 "종자소독, 배수, 시비관리, 잡초방제 등 체계적이고 쉬운 논 콩 재배 현장기술 노하우를 전수받아 조금이나마 자신감이 생겼다"며 다수확으로 소득을 증대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영광=서희권 기자